

인 터 서 브 프렌즈

창조 세계를 지키는 청지기
_ 김령 전문위원을 만나다



고통받는 피조 세계, 무엇을 배울까?

_ 인터서브 이슈

하나님이 이끄시는 특별하고 신나는 여행의 증인

_ 살라맛 선교사

선교적 가정

_ 미셔널 Thinking

역사를 당신의 선의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
죽음의 세력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이 땅의 질병을 고쳐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일들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당신께서 진행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스토리들을 펼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기쁨과 평안의 믿음으로 화평케 하며 두려움을 떨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일터와 가정과 사회 가운데 행하게 이끌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픈 이들과 가족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확신시켜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공무원들과 보건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용기와 분별과 보호를 허락하여 주소서.

당신의 능력을 베푸셔서 이 온역이 속히 거두어지게 하시고,
세계적인 확산이 멈춰지도록 이끌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로 받아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ontents

Value
변혁의 공동체
Transforming Community

- 04 크리에이션케어, Why? 2 _ 조샘 대표
- 07 선교적 가정 _ 송기태 부대표
- 09 인터서브 코리아 30주년 기념행사

People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Interserving People

- 10 인터서브 프렌즈를 만나다 _ 김령 크리에이션 케어 전문위원
- 13 미션얼 패밀리 _ 곽정래, 정숙진 (하빈, 라온) 선교사 가정
박야곱, 백합 (미,지,수) 선교사 가정
변순종, 김기쁨 (충만, 자유, 은혜) 선교사 가정
장영배, 김사랑 선교사 가정

Ministry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All Things To All Peoples

- 17 인터서브 필드 _ 카자흐스탄
- 19 하나님이 이끄시는 특별하고 신나는 여행의 증인 _ 살라맛 선교사
- 22 미셔널 북 _ 구약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Creation Care
인터서브 프렌즈는 친환경적인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 인더서브 이슈

크리에이션케어, Why? 2

조샘 대표

어쩌면 피조세계의 가장 작은 동물인 미생물들이
“이제 그만!” 이라고 소리치르며 인류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 헬스 One Health

지난 호에 이어 크리에이션 케어Creation Care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은 매일 500명 전후로 넘나들던 코로나 19 확진자가 점차 하양곡선을 그리다 드디어 100명 선 아래로 아래로 떨어진 날입니다. 반면 유럽은 새로운 진앙지로 등장했고 미국 역시 확진자가 삼천명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 바이러스가 이 회지를 받으실 시점에는 좀 가라앉을까요?

전세계를 휩쓰는 신종 전염병의 대부분이 20세기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 전에도 전염병 발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종류가 적고 출현빈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확산 역시 몇 십년, 길게는 몇백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조금씩 확산되었습니다. 현재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미생물 변종 출현 자체가 잦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대륙을 넘어갑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전염병 미생물 1,400 여종 가운데 60% 가량이 동물에게

서 온 것입니다. 도시화와 인구밀도의 증가, 별목으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와 인간 거주지의 혼재, 육류 소비의 증가, 대량 소비를 위한 동물 사육, 사료생산을 위한 기업형 농업과 유전자 변형, 항생제와 과도한 농약 사용, 기후의 온난화, 전세계적 교통과 교류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서 가장 작은 생명 단위인 미생물에게 영향을 주고, 동물로부터 인간으로 전해지는 변종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출현을 가속화하는 듯 합니다.

인간과 동물과 생태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병리학이나 보건학의 범위가 인간만이 아닌 피조세계 전체로 확대하는 학제간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하나의 건강” One Health 라는 단어는 인간과 동물, 생태계 전체의 건강성을 보고자 하는 20세기의 과학적 사회적 흐름을 얘기합니다. 어쩌면 피조세계의 가장 작은 동물인 미생물들이 “이제 그만!” 이라고 소리치며 인류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제 인터서브는 2018년 10월의 회의를 거쳐서 인터서브 전체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피조세계 돌봄Creation Care의 성경적 명령에 더 깊이 헌신한다” 를 중요한 우선 순위로 정했습니다. 현재 인터서브코리아는 이런 전체 방향에 발 맞추기 위해서 작은 팀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뿐 아니라, 교계 전체에 피조세계 돌봄에 대한 이해나 실천은 모두 약합니다. 이에, 크리에이션 케어Creation Care, 피조 세계 돌봄기에 대한 세번의 연재를 합니다.

- 1. 왜 전에는 이야기가 없었나?
- 2. 복음 전도와 무슨 관련이 있나?

3. 무엇을 배울까?

- 4. 무엇이 다른가?
- 5. 무엇을 할까?

2019년 겨울호 _____

2020년 봄호

_____ 2020년 여름호

지난 회지에선 1번과 2번의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회지에서는 3번의 질문을 던지고 답해봅니다. 다음 호에서 4번과 5번을 다루며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글쓰는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비전문가입니다. 학문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 글을 읽으실 대부분의 독자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도 비전문가로서의 의문들과 숙제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질문 셋. 무엇을 배울까?

세상을 생태적으로 이해하고 보존하기 위한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할까요? 이미 이 일을 해온 세상의 흐름을 읽고 경험을 배워야할 것입니다. 크게 세가지 부분에서의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생태계에 관한 자연과학적 지식의 이해. 피조세계의 다양한 생물들과 자연 현상을 따로 이

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피조세계가 인간과의 접촉을 통해서 상호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한 생태계적이고 상호 관계적인 관점들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과거에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종교적 도그마로 재단하고 신자들에게 강요했던 실수를 적지 않게 범해왔습니다. 우리가 자연 현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미 밝혀진 지식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 문명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의 자연 파괴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시장경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글로벌 자본주의와 도시화의 전세계적 확산은 초유의 현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제도가 아니라, 인간 문명에 대한 새로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거대한 세계관이며, 동시에 다양한 사회화를 통해서 이 세계관을 확장함으로 지금의 인간중심적, 생태파괴적 문명을 구축한 셈입니다.


자본주의는 생태계 중심에 사람을 두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관계를 맺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지향하고 동시에 자연을 인간의 부를 위해서 사용할 자원으로 바라봅니다. 이는 자본주의 전, 소농을 중심으로 한 농업 문화에서 요구되던 공동체적이고 협력적인 공동체적 인간관이나 동시에 생태계를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할 큰 전제로 여겼던 수동적 세계관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인문학적 이해와 현대 문명에 깔린 세계관을 이해함이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과학적 공학적 지식을 사용하고 적용할 주체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문화 안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규범적 인지적 세계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자본주의적 문명이 어떻게 구축되는가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동시에 대안적 문명이나 세계관으로 어떤 것들이 제안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그동안 시도되었던 대안적 실천의 경험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화가 워낙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기에, 많은 이들이 그 위험을 감지하고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대안적 삶의 형태로 제시되었습니다. 유기농업의 시도, 기업형 플랜테이션이 아닌 소농, 코뮌(공동체)commune 형태의 농업이나 자연친화 공동체, 토지공유와 조합 등이 그 예입니다. 어떤 실천들은 현 도시 문명과 시장 경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재활용, 대체 에너지 개발, 도시 속 농장, 채식 운동, 탄소 연료 사용 줄이기 등의 다양한 시민 운동들이 그 예입니다. 또 이런 시도들을 운동화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하고 녹색당과 같은 정치세력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듯 세상의 경험으로 먼저 배워야 함은 두가지 이유입니다.

첫번째, 이전 호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공부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성경적 신학적 성찰**로 이끌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은 일부일 뿐입니다. 새로운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꺼내줍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생태의 문제가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공공의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교가 진행되던 시대는 1세기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유럽에서의 기독교 왕국 ^{Christianism}의 경험 때문에, 우린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보낸 받은 사도이며, 흩어진 성도임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크리스천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은 어두움의 빛으로서 공공의 장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피조세계 돌봄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선행됩니다. 

(여름호에 계속됩니다.)

선교적 가정

missional family



한사랑 교회(서울 목동 소재)의 미셔널 저니가 2년 차를 맞이했다. 작년에는 소그룹 리더의 모임인 어울림 예배에서, '선교적 교회, 선교적 숲 모임'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올 해 전반기는 '선교적 가정'을 주제로 진행한다. 선교적 가정은 선교적 직장과 더불어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두 기둥이다.

▶ 가정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구원: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로 매우 강력한 집단이다.

현재 지구상에 사는 77억 6,400만의 인구는 모두 개인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어느 한 가정의 일원이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정 단위로 존재한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개인의 존재론만큼이나 중요하다. 오늘날 가정의 약화는 교회의 약화로 연결되는 강력하고 부정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그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았는가? 개신교가 쏟아내는 타문화권 선교의 열정이 이슬람의 움마 공동체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이 이에 비롯된 것이 아닐까? 가정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선교적 교회론 가운데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

▶ **복음과 가정**: “선교지에 가면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이 현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입니다.”

신입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때 마다 내가 하는 말이다. 복음은 나쁜 소식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가정에 대한 나쁜 소식은 가정의 시초가 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는 소식이다. 그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라 부부를 선택하셔서 태초에 만드신 부부 관계와 가정을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신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한 개인만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복음은 부부에게 그리고 가정 공동체에게도 좋은 소식이어야 한다.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 선교사는 이렇게 선언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고넬료의 회심 사건도, 사실은 고넬료 개인만 회심한 사건이 아니다. 그의 가족 뿐 아니라 그 날 그 집에 초대받은 그의 친구까지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구원을 눈으로 확인하게 한 사건이었다. 복음은 한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가정이라는 단위에서 작용하는 가족적인 기본 소식이다.

▶ **교회론과 가정**: 확대된 가족 공동체


에베소서에는 성경에서 교회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다. 5장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부부 관계가 더 깊고 친밀해지는지에 그치지 않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형대로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

회의 몸된 성도의 관계로 설명한다. 이런 설명은 단지 비유에 머물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 주제의 말미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엡 5:31, 32). 교회론은 부부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가정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가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교회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과 밀접하다. 그래서 교회는 ‘확대된 가족 공동체’^[extended family community]이다.

▶ **창세기 – 족장들의 가정 이야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담은 한편,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어떻게 타락하여 인류와 피조 세계가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좋은 소식의 구속사는 아브람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아브라함이 된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이야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된 야곱의 이야기는 매우 비참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대서사시가 전개된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야곱의 열 한 번째 아들인 요셉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애굽 땅에서 형성하시는지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가정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구속 서사시였다.

한사랑 교회의 기초 단위는 셀에 해당하는 숲 모임이다. 한사랑 교회는 숲 기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 저니 프로젝트’에서 숲 모임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교회의 기초 단위에서 선교적 문화가 형성되어 갈 때 교회 전체가 선교적 DNA를 배양한다. 주께서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를 통하여 가정들이 회복시키고, 보내심을 받은 가정들로 굳건히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송기태 파트너 (인터서브 부대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갈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나 하시나



함께 나누는 인터서브 코리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이야기

인터서브 코리아 30주년 기념행사 안내

1. 인터서브 30주년 후원자 감사의 날 #서른청년#인터서브#함께도약

일시: 7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CTS 아트홀

30살 청년이 된 인터서브와 동행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하고 30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풍성한 교제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인터서브 30주년 패밀리 캠프

일시: 7월 15일(수) - 18일(토)
장소: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30주년을 돌아보며, 공동체로서 하나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3. 인터서브 LAM Road Show

인터서브 코리아 30주년을 맞아 LAM(Life As Mission, 선교적 삶)을 주제로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인터서브를 통하여 행하신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도들이 보내심을 받은 선교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정 추후 공지)

인터서브 프렌즈를 만나다



창조 세계의 파수꾼

창조 세계의 보존 개념이 빠진 채
복음을 전하는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김령 프렌즈
(크리에이션 케어 전문위원)

안녕하세요, 김령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유기농으로 전환하신 부모님을 따라 경기도 양평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1월부터 부모님이 하시는 유기농에 합류했습니다.

Q. 선생님께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 모태 신앙이에요. 중1 때 학교 성경공부 동아리에서 처음 죄인됨과 회개를 경험했고 친구들과 해외 선교 꿈을 키웠어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읽고 막연하게 선교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 후, 인도로 한 달 미션트립을 다녀왔고, 선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간호학, 신학, 어학 등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우연히 본 한 기사를 보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한국의 방황하는 청소년들 기사가 참 충격적이었고 한국이 더 급한 선교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Q. 인터서브와는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나요?

» 농사에 합류하지 석 달쯤 되었을 무렵 선교한국 이대형 선교사님께서 농장에 오셨어요. 선교한국 국제부 파트너십 제의를 받고, 대회 브레인 스토밍 회의에서 조샘 대표님을 만났어요. 이대형 선교사님께서 늘 저를

어디에 연결해줄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곳이 인터서브였던 거죠. 그날 조샘께서 발표하신 로잔 문서 키워드 분석 팀으로 불러가 뚝뚝 중에 조대표님께서 크리에이션 케어 프렌즈 일을 해 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셨어요. 이대형 선교사님에 대한 신뢰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네!' 라고 대답한 것이 엮인 계기네요.

Q.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어떤 계기로 농부가 되신 건가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간호학, 신학, 어학을 공부했습니다. 간호학은 선교지에서 유용할 것 같아 공부했지만 적성에 맞지는 않았어요. 신학은 어디서나 성경을 가르치려면 영어권에서 신학을 공부 하라는 오빠의 조언으로 영국 London Bible College 에서 성경 신학 학부를 했어요. 귀국 전에 알바라도 할 생각으로 테슬 자격증을 따고 돌아왔는데, 시골에 살며 영어 교육에 목말라하는 어머님들께 붙잡혔어요. 그분들이 스스로 학원 건물을 찾아 보증금으로 3년치 원비를 선불

로 내신다기에 생각도 안 했던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또 학생회가 없는 시골 교회서 학생회를 조직해서 참 재밌게 일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환경 교육을 철저히 했어요. 저는 기독교 장신(가정) 교회 출신인데 우리가 창조세계의 파수꾼이라고 배우면 자랐습니다. 실천신학이 강하고 독일과 교류가 많았던 기장은 일찍 화학농의 폐해 같은 이슈를 접했고, 그걸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쳤지요. 한신 대학원에서 여성 지도자 교육을 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1기생이셨고 그때 받은 수업 내용이 거의 생태교육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여성들은 이미 유기농산물 먹기 운동을 하면서 인스턴트 식품, 환경호르몬 등의 무서움에 대해 배우고 주위에 이를 알리는 생명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 생명 운동 중 먹거리 분야인 유기농까지 뛰어들게 되었지요. 그래서 전공자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생태적 삶을 추구하다 만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Q. 부모님께서 하셨다는 생명운동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 1970년대에 독일에서는 2차 대전 후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농을 해운 것이 기형아 출산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위험을 빨리 개도국에 알리려고 한국 교회를 선택했고 그 당시 삼십만 원을 매달 지원했습니다. 여성연합회에서 그 지원금으로 유기농 확산 운동을 하기 위해 풀무원과 협력했고, 풀원은 유기농산물을 각지에 공급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아버지가 파트타임으로 그 일을 맡으셨다가 유기농을 하시는 친구분의 권유로 아예 전업을 하셨어요. '내 손주가 다음 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리라'는 신념으로 처음엔 집 근처 하일동에서 비닐하우스 두 동을 세를 얻어 농사를 짓고 여성연합회와 서울 강남지역과 우리밀매장 등에 유기농 채소를 납품하다 양평으로 내려와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었지요. 유기농산물 매장에 납품하다보니 매장의 수요에 따라 자꾸만 품목이 늘어서 상추, 썩장부터 콩나물, 달걀까지 안 키우는 게 없었어요. 유기농이 한참 붐이 일어 가능했는데 주말 농장과 인터넷 판매가 생기면서 적응하지 못한 매장들이 타격을 받고 덩달아 저희도 힘들어져서 돌파구로 딸기 농장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유기농은 비단 인간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화학농으로 미생물이 살 수 없는 산성화가 되어가는
흙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싸움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

Q.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것이 선교적 삶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사로 헌신하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대하여 증인된 삶입니다. 선교적 삶이란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



셨는데, 인간의 타락은 온 피조물을 탄식하게 합니다. 믿는 자로서 이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짓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인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인간의 악착같은 자본과 편리의 논리에 잠식당한 농법과 그에 물든 농부들이 사방에 포진하고 있고 저희는 그들 모두의 비웃음을 사며 이 싸움을 합니다. 우리에게 유기농은 비단 인간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화학농으로 미생물이 살 수 없는 산성화가 되어가는 흙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싸움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농토뿐 아니라 모든 창조세계는 인간의 탐욕과 편리에 대한 집착으로 무너졌습니다. 창조세계를 망가뜨린 우리의 풍요와 편리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런 삶이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는 선교적 삶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인터서브와 어떤 일을 하길 기대하시나요?

» 우선은 국제 인터서브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한국에 전달하고 한국 의견을 국제부에 전달하는 일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도 다양한 분들과 팀을 꾸려서 국내외에 크리에이션 케어가 선교지의 필요에 맞게 설계,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조세계 보존 개념이 빠진 채 복음을 전하는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Q 선생님께 선교적 삶이란?

» 구원받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삶! 말씀이 체화되어 모든 선택이 죄에 얽매이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되는 삶이요, 예를들어 내가 믿는 엄마라면 당연하게 오백 년이 가야 분해되는 종이 가져귀 보다는 천기져귀에 손이가고 그로 인한 나의 이기적인 불편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랄지요. 혹은 그 싸움을 기쁘게 하거나요. 물론 이 모든 행위가 그렇듯 이것이 형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순간 선교적 삶이 아닌 파괴적 삶이 되겠지만요. **✝**

김령 프렌즈의 인터뷰를 생생하게 만나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Interserve Korea를 검색해주세요!

곽정래, 정숙진 (하빈, 라온)


선교사 가정

안녕하세요. 지난 1월 인터서브의 새로운 가족이 하라(Healing All people and Revival All nations)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은 사랑의교회 장기파송선교사로 첫 사역(2016-2019)을 캄보디아에 있는 P대학에서 섬겼습니다. 현재는 본국으로 돌아와 다음 사역을 위해 훈련(60기 GMTC)과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장기선교사로 첫 사역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에게 묻고자 했던 근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종류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였습니다. 열정만 갖고 시작했던 첫 사역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선교의 궁극적 방향은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는 첫 사역이었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 가족과 은혜로 함께 했고,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2기 사역을 한국선교훈련원(GMTC)에서 훈련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사역 때보다 2기 사역이 더 기대가 됩니다.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 아름다운 동역자로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만남은 언제나 설레고 행복합니다. 이제 그 길을 저와 저희 가족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떠나려 합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에 함께 동행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션얼 Family

박야곱, 백합 (미,지,수)

선교사가정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연변과기대에서 복음을 듣고 교수님을 통해 제지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선교 비전을 품었습니다. 백합파트너는 위그르지역에서 한국 단체와 협력해 4년 간 사역을 하였습니다. 박야곱 파트너는 3의 직장생활 후 다시 과기대에서 컴퓨터프로그래밍을 전공하였습니다. 공부를 마친 후에는 중국 서남부의 수족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첫 사역은 수족마을을 방문하여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영접한 친구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모임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족들의 순박함과 그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불합리한 대우는 사역을 계속하게 하는 연결고리였습니다. 2005년 백합파트너와 결혼한 후 사역에 더욱 힘을 얻었고 묘족 학생사역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묘족학생사역은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번째 교훈은 '선교는 하나님 안에서의 협력이다'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희생만이 아닌 교회와 지체들과의 화목과 협력을 통한 결과가 선교임을 배웠습니다.

2015년부터 주안대학원대학교에서 선교학을 전공하면서 지난 사역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얻은 두번째 교훈은 '성육신적인 선교'였습니다.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민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알고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언어공부에 시간투자를 줄이고 사역에 더 집중하기로 했지만 현명한 선택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사역을 계속하려고 준비하던 중 조셉 대표를 만나게 하였고 인터서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변순종 김기쁨 (충만, 자유, 은혜)

선교사 가정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저희들을 인터서브의 한 가족으로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변순종 파트너는 초 6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고3 때 성령을 체험하여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기로 서원하였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철학과 중국철학,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교회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김기쁨 파트너는 중고등부시절 주님을 만났습니다. 대학시절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며 선교에 헌신하였으며 졸업 후 간호사로 일하였습니다. 2004년에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었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에너지 맨-충만^(중1), 자유로운 영혼-딸 자유^(초5), 모범생-딸 은혜^(초2)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2014년부터 A국 B지역에서 C족 교회개척 사역과 지도자지원 사역을 하다가 2019년 2월에 비자발적으로 철수하였습니다. 이제는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워 선교부흥을 보기 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를 위한 전략지역인 동남아시아 D국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은 A국이 다시 열릴 때까지 유학생 사역과 지도자 훈련사역, 선교동원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 이정에 한 가족으로 받아 주신 인터서브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며 성장해 가길 기대합니다. 


미션얼 Family

장영배, 김사랑

선교사 가정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이 허입되어 레바논으로 들어가게 된 장영배 김사랑입니다. 인터서브의 파트너가 되어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허입과정을 통해, 한 가정이 필드로 나가는 길목에 많은 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섬겨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각자 대학시절 선교적 삶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고, 2007-08년 On Track으로 키르기스스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 선교적 삶이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임을 깨닫고, 무슬림 지역에서 전문인으로 살며 좋은 그리스도인 이웃이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현실이 되어 장영배 선교사는 치과의사로서 김사랑 선교사는 음악학자로서 전문성을 갖고 중동지역에서 장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치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쉽지 않은 레바논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 현지 교회와 함께 난민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인터서브 필드

카자흐스탄 Kazakhstan



- ▶ 위치 : 중앙아시아 북부
- ▶ 언어 : 카자흐어, 러시아어
- ▶ 인구 : 1,877만명
- ▶ 종교 : 이슬람교(73%), 러시아정교(20%), 개신교(2%), 기타(5%)

카자흐스탄은 역사적인 교역로인 실크로드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독립한 카자흐스탄은 광산과 석유산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카자흐스탄의 통화인 텡겔의 평가 절하로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생활비는 점점 더 비싸지지만 급여는 늘지 않고,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인구의 대다수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인이며, 그외 많은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스타나는 수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현대적이고 다문화적인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텐산 산 기슭에 자리잡은 알마티는 유명한 실크로드의 무역 중심지로 오늘날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인터서브 카자흐스탄 팀은 작은 팀이지만 지난 15년 동안 이 곳의 상황과 변화는 시대에 맞춰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에 팀이 수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3개의 주요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자흐스탄의 변화와 성장이 이 곳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길 기대합니다. 여기서 머무는 기간이 짧던, 길던 누구나 이 곳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믿습니다. 단기적이던, 장기적이던,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공헌입니다. 아마도 이곳에 남기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카자흐스탄에서 남기고 간 나눔의 열매들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측정할 수 없지만, 당신이 잠시 머물다 감은 우리 카자흐스탄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이곳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카자흐스탄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의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에 열린 마음이 준비가 된 현지 기관들과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들을 통해 여러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이와 같은 사역할 수 있습니다.

● **출소한 여성들을 위한 하프웨이 하우스 :**

행정업무를 돕고, 여성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잼과 베이커리, 선물 등 여성들이 판매할 제품들을 개발하고 준비합니다.

● **영어 티칭 센터 :**

다양한 도시에 영어 센터가 있습니다. 잔디 깎기,

페인트 칠하기, 청소하기 등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고아원과 가난한 가족들을 만나 실질적 필요를 돕습니다. 물론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지역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 :**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기도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기독교 클럽**

지역의 이미 존재하는 기독교 클럽들이 있습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그룹이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신들이 일하고 살고 있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끊임없이 충돌하며, 자신들의 나라가 변화길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기독교청년들을 격려하고, 제자 훈련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당신의 삶을 청년들과 나눔으로써 시들어가는 지역 클럽의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에 와서 함께 일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맞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기회 삼아, 온트랙이나 장기 선교사로 우리 팀에 들어오시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인터서브는 온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1개월~2년 동안 선교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카자흐스탄 지역과 온트랙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031-778-7932,

ontrack.isk@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양한 필요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특별하고 신나는 여행의 증인

살리맛 파트너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의 살리맛과 보타고즈 가정입니다. 저희는 2009년 인터서브 선교사로 허입되었고, 2010년 6월 포항충진교회, 포항선린병원을 통해 파송되었습니다. 그후 뉴질랜드에서의 1년간의 훈련 기간을 거쳐 2011년 8월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1남 2녀로 형민, 시은, 성은이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과의 인연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1년, 저희 가정은 KOICA 국제협력의사로 파견되어 카자흐스탄에서 2년 반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다민족교회를 섬기면서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의 능력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과정임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특별하고 신나는 여행의 증인으로 함께 하고 싶어졌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후 한국에서의 7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의 사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지는데 카자흐민족 교회개척사역, 의료 사역, MK 학교 사역입니다.

카자흐스탄은 120여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하는 주 민족 카자흐 민족은 이슬람교에 그 정체성을 두고 있으며 복음화율이 1%에 그치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15세기에 이슬람화된 카자흐 민족은 제정 러시아에 복속된 이후 겪은 수많은 차별과 소비에트 연방 시절 협동농장(콜호즈) 제도에 반대하다 숙청된 수많은 카자흐 유목민들의 역사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천 년간 기독교 국가였던 러시아의 신인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배교이자 민족을 파는 매국행위로 간주됩니다. 카자흐인에게는 십자가나 이수스(예수)라는 단어가 매우 민감한 금기어입니다. 그래서 카자흐 민족을 향한 교회개척 사역은 이들의 거부감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카자흐어로 이뤄집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러시아어가 가장 널리 쓰이는 공용어이지만 교회 모임에서는 카자흐어만을 사용하고 카자흐어로 된 성경과 찬송을 사용합니다. 카자흐어로 된 성경 번역이 완성된 것은 불과 10년 전입니다.



카자흐민족 교회개척사역

러시아어가 익숙했던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12년 1월부터 카자흐어로 예배와 교제가 이뤄지는 카자흐 민족교회에 합류했고 지난 9년간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 기존 교회에서 분리 개척된 카자흐 교회에서 현지인 성도들과 신앙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주로 여성사역, 가정 심방(모임), 제자훈련, 찬양예배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카자흐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현지인 교회를 지향합니다.

의료사역은 몇 번의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살라맛 선교사는 파송 후 첫 3년은 '알마티 동산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현지 교회와의 협력에 초점을 맞췄고 이후 현지 의료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현지병원 '도스타르메드'에서 1년간 진료를 했습니다. 2016년부터 4년간은 한국 KOICA와 용역 계약을 맺고 수도인 누르술탄(구, 아스타나)에 있는 나자르바예프 의대 교육병원인 University Medical Center(UMC)에서 현지 의료진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을 해 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최상위 의료진을 대상으로 5회에 걸친 의학세미나와 멘토링 과정을 열었고 카자흐스탄 보건의료정책 입안자들과 교류하며 현지 의료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MK 사역은 알마티에 있는 텐산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타고즈 선교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7년째 중고등학교(7-12학년) 과정의 행정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살라맛 선교사는 2016년부터 3년간 학교 이사회 멤버로 활동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카자흐스탄 땅을 섬기러 온 많은 교육 선교사들과 함께 MK학교를 통해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MK들을 섬기며 희망을 심고 있습니다. 그 밖에 20여명의 국제 인터서브 선교사들과 함께 이뤄가는 카자흐스탄 팀 모임은 언제나 힘이 되고 풍성합니다.

올 해는 저희 가정이 한국을 떠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아보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난 10년간 벌어졌고 우리의 계획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놀랐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4학년이던 형민이는 올 3월에 한국 대학에 입학하고 시은이와 성은이는 각각 12학년과 11학년이 됩니다. 형민이의 새로운 문화 속으로의 적응과 새 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라맛 선교사의 누르슬탄에서의 교육 사역이 3월로 종료되기에 다음 단계를 인도해 주시길 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카자흐 민족교회가 사자같이 강하고 용맹하게 일어서도록, 더 많은 현지인 말씀 사역자가 카자흐 민족 가운데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



 미셔널 BOOK


구약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크리스토퍼 라이트 지음, 전의우 옮김 / 성서 유니온, 2016

“우리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신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에 앞서 수천 년에 걸쳐 자신의 백성에게 가르치신 놀라운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다. 늘 신약 성경만 읽고 설교한다면, 기초나 아래층 없이 꼭대기 층에 살려 하거나 뿌리를 뽑고 줄기를 잘라 내면서 열매를 바라는 것과 같다”(p.16).

엠마오 제자들과의 대화 : 주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는 매우 독특하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주님의 대화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매우 태연하게, 혹은 짓궂게 두 제자들에게 질문하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제자를 이렇게 책망하셨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5-27).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제자들을 방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눅 25:44).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삼년 동안 구약을 가르치셨다. 문제는 제자들이 구약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오늘날 우리들처럼 말이다.

소외된 구약 성경 : 교회의 역사에서 구약은 이류 취급을 받는 성경이었다. 특별히 종교 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에서는 그 영향이 더 컸지 않나 싶다. 구원이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을 강조한 루터의 영향이, 마치 구약은 율법에 관한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것이라는 오해가 되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심각한 한계로 작용해 왔다. 이런 폐해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는 복음, 혹은 구원론에 대한 얕은 이해다. 성도들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시작된 것이며, 또한 교회로 오순절 성령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다. 이런 오류는 엠마오 제자들처럼 (12 사도를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구약에서의 희년이나 사회정의 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를 충분히

알지 못하게 한다. 그런 결과 교회는 총체적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타문화권 선교도 그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여겨진다.

성경에서 구약의 의미 : 저자 라이트는 구약과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마치 에쿠아도르에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도인 키토로의 여행을 함께 했던 사역자들과의 여행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버스를 타고 밖을 구경하며, 쉬어 가는 과정, 차 안에서 대화하는 것 등등 모두가 목적지인 키토로 가는 여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구약은 신약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향한 여정이며, 동시에, 구약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총체적 복음, 총체적 선교 :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문화에서도 전달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의 좋은 소식이다. 구약의 법률들, 시편과 잠언 등은 세상의 모든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한 도구이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질 이야기 뿐 아니라 그 이야기가 인간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은 설교자 뿐 아니라,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주님되심에 순종하여 제자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구약 안내서이다. 이 책을 통하여 율법이 과거에 있었다가 지금은 폐기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시편을 감상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 창조주의 창조성을 찬양하고 열방의 주인되심을 시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잠언은 더욱 더 풍부하게 어떤 문화권에서 누구와도 대화할 소재를 제공하는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송기태 파트너(인터서브 부대표, 교회 관계)

인터서브 프렌즈

통권 135호
2020 SPRING

우리는 누구 입니까?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아랍과 아시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비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핵심가치

1. 하나님을 의존함 2. 공동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4. 파트너십 5. 온전성 6. 총체적 7. 종 된 섬김

인터서브 계간지 2020년 봄호 통권 135호

발행인 조샘

편집인 이나래

발행일 2020. 3. 23.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1206

전 화 031-778-7931 **팩스** 031-728-4777

이메일 interservekorea@gmail.com **홈페이지** interserve.kr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nterservekorea

디자인·인쇄 피터폴 010-3373-3750

〈인터서브 프렌즈〉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experience
Life As Mission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청자일로 1, A동-1206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플리스) 우)13616 Tel : 031-778-7931
Fax : 031-728-4777 Email : interservekorea@gmail.com H.P : interserve.kr FB : facebook.com/interservekorea